



아직도 복날에 개고기 먹는다고? 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북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들이 들어가 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조리 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옥지훈 기자

협치 외치던 김동연, 불통 행보에 '적신호'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업무보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한바다 언질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상임위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를 포함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에 두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행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며 앞서 도의회 양당의 협치를 전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이 만이 의회운영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양당이 모두 지켜야 할 자치법규를 도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도, 도의회 운영위 업무보고 협조 無
비서실·보좌기관 불참으로 차질 발생
자료 미제출, 자치법규 불이행에 분개
의사일정 '보이콧' 시사... 강력 반발**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상임위가 피감기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 관련 자료를 수신받고 이 자료를 토대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피감기관·부서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비서실의 경우 이날 업무보고가 있기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에야 보고 자료를 의회운영위에 전달했고 도 보좌기관은 상임위에 아무런 자료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도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이날 의회운영위 보고 참석차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비서실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은 도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는 등 언질 없이 의회운영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김 지사가 도의회와 협치 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협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도가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행감을 수용할 당시인 18일 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공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의회는 의사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양우식(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강수를 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욱(파주2)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도의회 양당 지도부와 도가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행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의회운영위를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 불출석 등의 이유로 4시간 지연된 오후 6시에야 개최했다.

뒤늦게 열린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의 불출석에 대해 따지기 위해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규환 기자

대한 건아들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2024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900년과 1924

년에 이어 100년 만에 세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답게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최식을 진행한다.

파리 올림픽은 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개최식을 치르는 데다 코로나19 종식 후 열리는 만큼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또 야외에서 개최식이 진행되면서 이색적인 방법으로 선수단이 입장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각 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센강 위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입장한다.

선수단의 수상 및 선상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르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6km 구간에서 열린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이 자리해 있다.

이번 올림픽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기준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

2024 파리 올림픽 내일 개막

지구촌 최대 대제전, 17일간 열전 돌입
사상 최초 경기장 밖에서 개최식 진행
배타고 센강 지나는 선수단 입장 '눈길'

205개국 1만 500명 선수들, 실력 과시
韓, 21개 종목 143명 파견... 15위 목표

외한 204개 국과 IOC가 여러 사정으로 고국을 떠난 선수들을 위해 결성한 난민팀까지 모두 205개 팀에서 1만50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으로 32개 종목 중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가 파견됐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다.

한국은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수영, 육상,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에서도 금메달이 나온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회식에서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승 후보 우상혁(용인특례시청)과 여자 수영의 베테랑 김서영(경북도청)이 공동 기수를 맡아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한국은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를 시작으로 입장하는 선수단 중 프랑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라별 입장이 이어지고 센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표기가 알파벳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205개 참가 팀 중 비교적 앞 순서에서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최국 프랑스가 맨 마지막에 입장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정민수 기자

[8면] 민선 8기 '2년의 발자취' 김성제 의왕시장

2 '채상병 특검법' 또 다시 좌절... 재표결도 부결돼 '자동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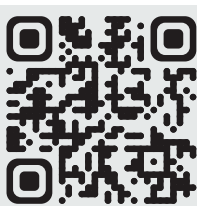
3 이재명에 맞설 '야권 대표' 대권 주자는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경기아트센터 아트플러스

회원제 사전모집

내 삶에 예술을 더하다,
ART PLUS

문화의 새로운 차원, 아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사전모집 신청서